

# LOCAL “전남도민 스포츠 축제 만반의 준비 마쳤다”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전남체전, 18일 개막...육상·축구 등 23종목 기량 겨뤄  
30일부터 장애인체전...불거리·체험 등 프로그램 다채  
김한중 군수 “양대 체전 성공 개최...장성·전남 도약을”

장성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제64회 전남체육대회와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준비를 모두 마쳤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양대 체전에 참여하는 선수단과 방문객 규모는 3만4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전남체전은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육상, 축구, 테니스, 소프트테니스, 배구, 탁구, 씨름, 궁도, 태권도, 배드민턴, 복싱 등 총 23개 종목 경기를 갖는다.

첫 경기는 하루 전인 17일에 열리는 골프(푸른솔GC)다. 대회 마지막 일정은 21일 오후 1시 스타디움 주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축구 결승전이다.

전남장애인체전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3일에 걸쳐 진행된다. 30일 오후 1시 문향고등학교에서 열리는 당구 시합을 시작으로 게이트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수영, 역도, 육상, 조정, 축구, 탁구, 파크골프 등 총 21개 종목의 시합이 열린다.

지역색을 담은 ‘성화 봉송’도 체전 관련

의 모미다.

개막식 하루 전날인 17일 오전 10시 백암산 국기단에서 채화한 성화는 11개 읍·면에 마련된 성화 봉송 구간을 달리게 된다. 장성호 ‘수상 봉송’,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유림 봉송’, 상무대 장병들의 ‘영내 봉송’ 등 이색 성화 봉송도 펼쳐진다.

18일 오후 2시 황룡정원 무대에서 출정식을 가진 뒤에는 황룡강변을 따라 공설운동장으로 이동한다. 스타디움에 성화를 점화하는 마지막 주자는 장성 출신 김용을 전남도청 펜싱팀 감독이 맡는다.

장성 최초로 열리는 양대 체전인 만큼, 화려한 공연이 빠질 수 없다.

18일 개회식 식전 행사로는 장성군이 배출한 국악인 송경배 대금소리연구소장과 전남무형문화재 김은숙 가야금병창이 전통음악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개회식 이후에는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아모르파티’로 유명한 ‘엔카의 여왕’ 김연자, 김태연, 린, 지오디(god) 손호영·김태



장성군이 창군 이래 최초로 제64회 전남체육대회와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의 준비를 모두 마쳤다. 사진은 체전 자원봉사자 발대식 및 성공체전 다짐대회 모습.

우, 정동원 등의 무대가 체전의 시작을 장식한다.

축하공연이 끝나면 ‘멀티미디어 드론쇼’가 환상적인 불거리를 선사한다. 300대의 드론이 밤하늘에 날아올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30일에 열리는 제33회 전남장애인체육대회 개회식에선 ‘현역가왕2’ 우승자 박서진, 곡영광, 성민지의 축하공연이 펼쳐진다.

다.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 개회식과 축하공연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군은 관광 프로젝트 ‘장성 방문의 해’ 운영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방문객에게 제공한다.

특히 체전이 있는 4월과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가 열리는 5월은 ‘장성 방문의 달’로 정하고 집중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

다. 장성에서 음식점이나 상가를 이용한 뒤 영수증을 제출하면 장성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영수증 이벤트’, 반값에 택시를 타고 관광여행을 떠나는 ‘관광택시’가 대표적이다.

‘장성 방문의 해’와 양대 체전 일정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포털사이트에 장성군을 검색하고 군 누리집을 선택하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장성 방문의 해’ 이벤트의 경우, 누리집 사전 예약이 필요한 콘텐츠가 많다.

군은 황룡강변에 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공설운동장(옐로우시티스타디움)을 신축하는 등 체계적인 준비를 통해 2023년 5월 숙원을 이루는 데 성공했다.

이후 체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김한중 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발 빠른 준비에 돌입했다. 종목별 경기장 배정, 시설·현장 확인, 정비계획 수립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방문객 편의성 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전남체전 개회식이 열리는 18일에는 공설운동장 인근에 최대 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주차 공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군은 양대 체전 개최로 늘어나는 생활인구가 지역 성장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김한중 군수는 “장성 최초로 열리는 양대 체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장성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겠다”며 “200만 전남도민의 스포츠 축제인 전남체전·전남장애인체전이 장성의 성장을 넘어 전남의 도약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4월 역사인물 ‘만암 스님’ 선정  
1947년 백양사 고불총림 설립

장성군이 4월 장성역사인물로 ‘만암 스님’을 선정했다고 15일 밝혔다.

1876년 전북 고창에서 태어난 만암 스님은 1885년 백양사 도진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며 출가했다. 이후 여러 사찰에서 큰스님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1916년에는 백양사 48대 주지로 취임해 사찰을 새로 짓는 ‘중창불사’를 시작했다. 동국대학교의 전신인 해화전문학교, 정광중·고등학교를 여는 등 교육사업에도 매진했다. 1947년에는 한국 최초로 백양사 고불총림을 설립했다.

구한 말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격변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평생을 인제 양성과 왜색 불교 척결에 앞장선 만암 스님은 한국불교의 기틀을 다진 ‘큰 스승’으로 평가받는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 ‘치유 명소’ 축령산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군-국립장성숲체원, 숲 체험 활성화 협약 체결

장성군과 국립장성숲체원이 축령산 체험관광 활성화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군과 숲체원은 최근 군청 상황실에서 ‘축령산 관광자원 연계 프로그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김한중 군수, 정종근 국립장성숲체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관광자원 연계사업 추진, 산림자원 활용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기타 사업에 필요한 교육·홍보활동 등이

다. 협약을 계기로 축령산에서도 국립장성

숲체원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장성 축령산은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편백나무 조림지다. 총 4개의 등산코스나 하늘길길 전망대, 구름다리, 금곡영화마을, 민박촌, 관광농원 등을 갖추고 있다.

군은 주차장 확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을 구축해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고 관광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비 사업인 축령산 자연휴양림 조성과 대한민국명품숲기념관 건립도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부터는 편백숲 인근에서 천연 비자나무 숲 조성도 시작했다.

김한중 군수는 “치유관광 명소인 장성



축령산에 국립장성숲체원 프로그램이 더해져 한층 풍성한 즐길거리를 선사하게 됐다”며 “관광·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gwangnam.co.kr

## (주)고려시멘트 건동광산 개발계획 준비

군, 광명동굴 답사·운영 방식·사업 공유

장성군은 (주)고려시멘트 건동광산 활용방안 마련에 나섰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김한중 장성군수와 공무원, 언론인 등 10여명은 최근 광명시 광명동굴을 방문해 (주)고려시멘트 건동광산의 활용방안을 찾았다.

박승원 광명시장, 서일동 광명도시공사 사장 등의 안내를 받으며 동굴 안으로 들어가 김한중 군수는 광명동굴 소개, 현황, 운영 방식, 향후 추진 예정사업을 들었다.

광명시 가학산 근린공원에 위치한 광명동굴은 1912년 일제가 자원수탈을 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 광명동굴

(옛 시흥광산)은 일제강점기 징용과 수탈의 현장이자 해방 후 근대화·산업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1972년 폐광된 후 40여년간 새우젓 창고로 쓰이며 잠들어 있던 광명동굴을 2011년 광명시가 매입해 역사·문화 관광명소로 탈바꿈시켰다.

광명동굴은 산업유산으로서의 가치와 문화적 가치가 결합된 대한민국 최고의 동굴테마파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연간 1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세계가 놀란 폐광의 기적을 이뤘다.

장성=이항범 기자 lhb6699@

https://www.instagram.com/hongdorestaurant/

싱싱함이 살아있는 맛—

# 홍도횃집

경어 / 참돔 유비끼 / 참돔

유비끼 전문

장동 / 감성동 / 농어 / 광어 / 세꼬시

광주 남구 봉선로 19번길 3 | 062-652-0747